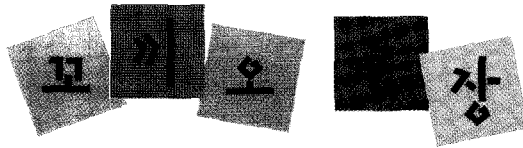


대일 신선닭고기 수출의 첨병



지난 10일 (주)마니커(대표 한형석)는 총 9톤의 신선 닭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했다. 그동안 국내산 닭고기의 대일 수출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나 그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생산성 부분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마니커가 닭고기 수출전선에 본격 나서게 된 배경에는 꼬기오농장(대표 박정근)이라는 걸출한 육계 계약사육농장이 있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에 위치한 꼬기오농장은 육계생산량이 33일령에 150kg에 육박, 국내는 물론 육계사육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평균 생산

량인 130kg대를 훨씬 상회하는 사육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농장과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주)마니커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5만1천9백수를 입추, 33일령과 34일령으로 모두 5만1천3백90수(육성률 99%)를 출하한 결과 총 중량이 8만5천1kg에 달했으며 평균중량은 1.656kg, 사료 요구율은 국내 최상급수준인 1.56, 생산지수 31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출하일령별로 구분해 보면 1만4천6백40수였던 33일령 계군의 경우 총 출하중량이 2만2천6백30kg에 평체중이 1.546kg 이었으며 35일령은 3만6천7백50수로 총 출하중량이 6만2천4백70kg, 평체중 1.7kg이었다.

**평당 육계생산량 33일령 평균 150kg육박
평당 사육수수 100수까지 도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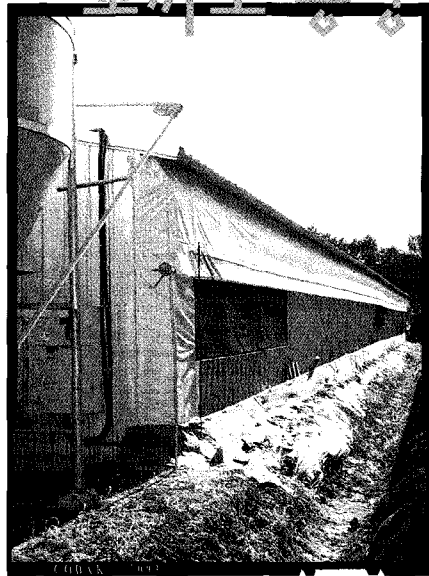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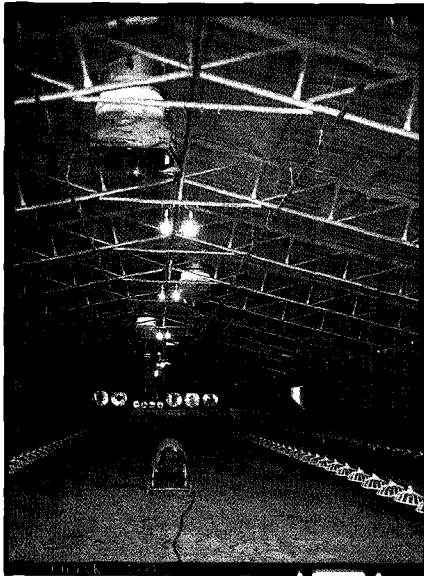
특히 평균 육계생산량의 경우 평당 86.9수가 입식됐던 것으로 조사돼 육성율과 평균체중을 근거로 이 농장의 평당 육계생산량을 감안할 때 약 143kg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평당 육계생산량이 80kg수준임을 감안할 때 타 농가에 비해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창계사로 매년 6회전을 하고 있는 꼬기오 농장의 수년간에 걸친 평균사육성적은 사료요구율 1.57



꼬끼오 농장

~ 1.58, 육성율 99.5%, 평균생산지수 303~305로 평균사육수수가 70수에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처럼 육계사육에 있어 남다른 성적을 보이고 있는 박정근 사장의 사육비결은 철저한 사육장관리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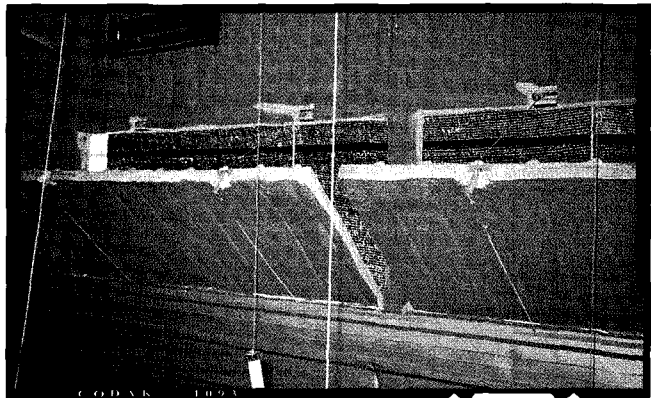


수익이나 생산비에는 구애받지 않고 최고품질의 닭 생산과 사육성적을 거두겠다는 마음자세와 의지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박사장은 환기와 방역, 온·습도의 철저한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무창계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창계사에 추가로 이중의 원치시설을 갖추 또다른 공기층을 형성해 줌으로써 계사 내 급격한 온도 변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공기의 역류도 차단, 사각지대를 없애 최적의 계사환경을 유지해 주고 있다.

꼬끼오 농장의 방역은 철저한 소독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당 1회의 계사 내·외부의 소독이 실시되며 닭 출하 후 반드시 사료구동부내에서 사료찌꺼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이·급수기와 사료빔의 청소가 이루어지며 10일에 1회씩 음수소독을 실시, 계사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생균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나



전기와 후기사료의 전환을 일시에 실시, 닭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주고 있다는 점도 특히 사항이다.

이번에 마니커의 수출용 닭을 입식, 기대이상의 성적을 거둬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박정근 사장은 『계열주체를 비롯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평당 100수까지 도전할 계획이라며 국내만이 아니 미국 등 축산선진국의 농가에 비해서도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